

[ 종합·국제 ]

■ 대법관 후보 15명 면면 살펴보니

대법관 제정 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선정한 대법관 후보군 15명의 관결과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점검해본다.

법관 10·검찰 2·학계 2·재야 1명

◇변화·개혁 중심의 후보군

‘법조 내 재야’ 개혁적 판결 주도



▲이훈 서울중앙지법 원장(14회)=개혁적 인물로 재야가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로 이미 여러 번 거론됐다. 법원의 주류인 정통 엘리트 법관이면서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개혁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엄격한 법률 해석...친화력 뛰어난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14회)=친화력이 뛰어나고 민사·형사·조세·환경·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며 엄격한 법률 해석을 토대로 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1998년 ‘삼척 교육대 피해자에게 배상을 약속한 국가가 약속을 어겼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사회지도층 범죄에 엄격한 양형



▲전수안 광주지법원장(18회)=여성 법관 중 ‘최고참’으로 온화한 성품과 달리 판결은 누구보다 엄정하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전문직 범죄, 여성 인권유린 범죄에 엄격한 양형으로 유명하다. 김용산 극동건설 회장의 특경 가법 위반(배임 등) 사건 등 각종 항소심에서도 원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실형을 선고했다. 여성 몫을 고려해 전 법원장이 이번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배심제 도입 관철시켜

▲목영준 법원행정처 처장(19회)=법원 조직에서 이례적으로 재판과 행정 두 분야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겼다.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해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 아파트 채납관리비는 공용과 전용을 분리해 공용 부분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엄격한 법해석·실력과

환경분야에도 정통한 소신과

▲민형기 인천지법원장(16회)=민·형사 사건

을 법리적으로 따져 소신껏 판단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일조·조방권, 사생활 등이 침해된 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흥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 시가하락분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환경분야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부 신망 두터운 실력과

▲김능환 울산지법원장(17회)=실력과 법관으로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연구논문 부실 이유를 재입을 심사해서 탈락한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 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기업 도산 무난히 처리 호평

▲차한성 청주지법원장(17회)=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2년여 간 이끌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도산 사건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DJ 내란음모’ 재심사건 무죄 선고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8회)=선처와 엄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엄정한 판결로 유명하다. ‘DJ 내란음모’ 재심사건을 맡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륜과 지역 안배 고려한 후보군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제동 걸어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15회)=경북과 서울대 법대를 나온 TK(대구·경북) 출신.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신용정보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盧대통령과 사시동기 ‘8인회’ 멤버

▲김중대 창원지법원장(17회)=경남 지역법관으로서 ‘지역 안배 몫’으로 유리 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8인회’ 멤버이다. 부산지법 근무시 발행지 표시가 없는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소신있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검찰 및 안대희-김희옥 압축

‘대선자금’ 수사 지휘한 특수통



▲안대희 서울고검장(17회)=대선자금 수사로 유명하며 특수통 검사로 통한다. 대검 중수부 1,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 등 남들은 한번 잡기도 어려운 특수수사 지휘봉을 연이어 잡았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대검 중수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해 국민적 박수를 받았다.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할 때 ‘조세형사법’이라는 책을 펴내 학구파의 면모도 갖췄다.

非서울대출신...원론·각론 정통

▲김희옥 법무부 차관(18회)=자타가 공인하는 검찰내 대표적인 학구파. 원론과 각론, 판례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 대구경북 출신 대법관이 없는 점과 비(非) 서울대 출신인 것도 유리하다.

◇학계·재야

외국 법률 풍부한 민법 전문가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16회)=민법 분야의 전문가로 민사판례 연구회장을 맡아 판례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 민법분야의 다양한 저서를 펴냈고, 미국 뉴욕대와 일본 도쿄대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 법률에도 풍부한 지식을 쌓았다.

순수 학계출신...해상법 분야 활약

▲채이식 고대 법대 교수(11회)=법관 경력 이전에는 순수 학계 출신.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드문 해상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최근 기업 관련 소송, 범죄가 급증하는 것 때문에 상법 분야 전문가의 대법관 임명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엘리트 법관 코스 밟은 변호사

▲한상호 변호사=재야 몫으로 추천됐으며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을 거쳤고 서울고법, 행정처 등을 거쳤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獨, 월드컵 비상경계태세 돌입

첨단장비·군경 수천명 동원 극우파·출리건·테러 만전

월드컵 개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독일 정부가 공중조기경보기와 폭발물 탐지 로봇 등 첨단 장비와 수천명의 군경을 동원한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다. 5일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은 “치안력을 총동원해 월드컵 기간중 독일 전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월드컵 기간중 독일 내 ‘위험지역(no-go areas)’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독일에서는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인종주의를 표방하는 극우파의 폭력 행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역에서 발생한 극우파 관련 폭력범죄는 전년에 비해 23%나 증가했다. 쇼이블레 내무장관은 이같은 극우파의 대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러나 극우파의 물리적 행위가 월드컵

을 방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터 벡스타인 바이에른주 내무장관도 “몇몇 경기는 세계 전역에서 수십억 인구가 시청한다”며 “그런 점에서 테러 대상으로 월드컵만큼 좋은 게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는 영국과, 미국, 이란이 참가해 이들을 목표로 한 공격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 정부는 ‘9·11 테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월드컵 기간중 공중조기경보기를 상공에 배치해 테러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최진만기자 man21@



‘코끼리 영화’ 즐기는 코끼리들 5일 태국 아이우타에서 코끼리 조련사와 코끼리들이 모여 앉아 코끼리가 주인공인 태국 애니메이션 영화 ‘칸 클루아이(Kan Kluiyai)’를 관람하고 있다. 이 영화는 아기 코끼리가 아버를 찾아 모험을 떠났다가 태국 왕을 위해 싸우는 장군으로 성장, 400년 전 존재했던 고대 아이우타왕국을 재건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독재형 부모’ 비난아 만든다

美 학술지 “자율형보다 4배이상 높아”

독재자 스타일의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비난아 가 될 위험이 자율형 부모의 자녀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5일 나왔다. 또 ‘오냐오냐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 ‘무관심형 부모’ 밑에서 방치된 생활을 해 온 아이들의 비난 확률도 자율형 부모의 자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소아학 전문학술지인 ‘피디에트릭스’는 최근 출간된 6월호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의 스타일이 자녀들의 비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흥미있는 연구보고서를 게재했다. 조사 결과 독재형 부모 밑에서 엄격하게 자란 아이 가운데 17.0%가 비난인 반면에 자율형 부모 아래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되 융통성 있게 생활하는 자녀의 비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커피 마시면 설득 잘 당한다

濠 연구팀 “데이트·협상시 긍정 반응”

몸 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과학자들이 5일 주장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 연구팀은 1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커피를 마셔 적당한 카페인이 몸속에 들어가면 설득당할 태세가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마시는 데도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먼저 조사한 뒤 그냥 주느냐 커피 두 잔 분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주스를 마시게 하고 나서 그들의 견해를 반대방향으로 설득하는 실험을 해보았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High School Academy (낙내영고시학원) featuring a quote from a former official and a list of courses.

Advertisement for Eduview (에듀뷰넷)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ir website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Hyundai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highlighting its curriculum and facilities.

Advertisement for Mung High School Academy (무등고시학원) for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Heat Well (Heat Well) electric heaters, comparing energy efficiency and costs.

Advertisement for Hyundai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list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yeongnam University (김영대학) for entrance exam preparation.